

다니엘 4장 28-33절 말씀

-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
-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
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
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
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
-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
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
느부갓네살 왕아
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
-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
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
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
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
- 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
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
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
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

다니엘 4장 34-37절 말씀

- 34 그 기한이 차매
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
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
-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
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
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
-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
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
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
-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
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
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
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
-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
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
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
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